

다이쇼인 절: 티베트 밀교 모래 만다라(관음당 내부)

관음당에서는 2006 년부터 거대한 두 개의 티베트 모래 만다라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2006 년, 다이쇼인 절의 창건 1,200 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다이쇼인 절이 속해 있는 진언종과 교리적·역사적으로 강한 유대를 맺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최고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법왕이 초청되었습니다. 당시 달라이 라마 법왕을 수행했던 티베트 승려가 그린 이 만다라는 완성까지 3 주가 소요되었습니다.

불교에서 만다라는 우주를 도형화한 그림으로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특히 색을 입힌 모래로 그리는 만다라가 일반적이며 정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기도를 드리기 위해 만든 모래 만다라는 물질 세계의 무상함을 상징하며, 기도를 올린 후 곧장 지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다이쇼인 절의 모래 만다라는 참배객들을 위해 지우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